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4월 정기 당회가 수요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 신약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참여한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늘 새롭기를 축복합니다.
- 다음 주일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유익한 월례회가 되도록 임원들은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를 섬겨준 2, 3여 선교회와 이모저모로 협력한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입교와 세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입교: 이하나, 이해린, 이해빈, 채다운, 정한비
세례: 곽예연, 김선우, 박영선, 신도영, 임성현
- 이태한 목사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KPCA) 참석차 5월 2일(목) 출발하여 5월 25일(토)에 돌아옵니다. 일정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갈보리교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골 2:5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이다!

2019년 4월 28일 주일

2019 신앙생활 표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오혜신자매

○4월 기도 순서

2부예배
5월 5일 손조훈집사
5월 12일 정관영장로
수요일예배
5월 8일 정옥자권사
5월 15일 이해경집사
청년예배
5월 5일 권우석형제
5월 12일 홍진솔자매

○5월 예배안내

이광희/김자경

○5월 교회사역

5일(주일): 자녀주일
10일(월-금): 금요저녁
기도회
12일(주일): 부모주일
29일(수): 공동체 주관
예배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찬 양 ----- 주일찬양단

예배로 부름 ----- 요한복음 11:25-26, 4:24 ----- 인도자

◎ 찬 송 ----- 36장 ----- 다같이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 258장 ----- 다같이

대 표 기 도 ----- 박병민 장로

성 경 봉 독 ----- 로마서 8:26-30 ----- 인도자

찬양대 찬양 ----- 찬송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지으심이라 -----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 우리 연합함을 도우시나니 ----- 이태한 목사

찬 송 ----- 191장 ----- 다같이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 응 답 송 ----- 445장 ----- 다같이

◎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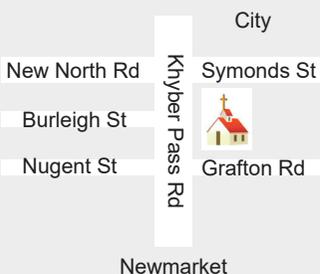
오후 7시 30분
인도: 이태한목사

기 도 ----- 장연식집사 찬 송 ----- 365장

성경봉독 ----- 마태복음 15:12-20 ----- 중보기도 ----- 다같이

설 교 -----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이태한목사 ----- 주 기 도 ----- 다같이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AM11:20
주일 2부예배 주일 PM1:00
청년예배 주일 PM3:15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새벽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이성철
부목사 : 이성훈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부활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2. 말씀이 기초가 되어 이해와 배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도록.
3. 주의 종들에게 기쁨 부으심과 교회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잘 성장하도록.

선교와 증보기도

이번 주는 4월 8일 심장 수술을 한 네팔 전기봉 선교사의 병상일지입니다.

3월 24일: 목사님, 앞가슴을 절단하고 벌려 허벅지에 깨끗한 핏줄을 적출해서 심장에 이식하는 팀과 혈관에 풍선을 넣어 확장해서 줄어들지 못하게 스프링을 넣는 스탠드 시술이 있는데 두 팀이 각자 최선을 다해서 어느 것이 제 심장에 적합한지 각종 검사를 계속해서 내린 결론은 가슴 중앙을 절단해서 핏줄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월요일(4월 8일) 오전 6:30분 수술을 시작하고 금요일 퇴원을 해서 전문 간호원이 있는 NURSING 홈으로 옮겨 한 두 달 요양을 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병원에 들어와서 검사를 해보니 영양실조에다 간 등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곳 우리 선교단체, 교단 노회에서는 안식년을 가지라고 하지만 다섯 군데 공사현장과 또 다섯군데 새로 건축 후원을 받았으니 밤낮으로 생각을 해봐도 결론을 내지못하고 있습니다.

옛그제는 수술 집도의가 제 방에 들어와서 인사를 하며 인도 어디에서 사역을 하느냐고 묻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오십 대 중반 맑고 쾌활한 인도 의사와 간호사가 제 심장수술 집도 의사라니 ... 11년동안 인도 목사 건축자들의 비 상식적이고 야만적인 행동 거지에 울화통이 치밀어 결국 심장에 간에 척추에 손상을 입고 치료를 하려고 미국에 들어와서 또다시 인도의사에게 저의 심장 치료를 맡기게 되었으니 이 무슨 인연이나 말입니다.

맏히에서 풀어야 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 한 사변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회개와 부질없는 생각들을 이번 기회에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가던 길 계속 갈 것입니다.

4월 19일: 4월 8일 오전 6:30분 수술실로 들어가서 40센티 가슴을 완전 절단하고 임시 바이패스로 심장을 대신하고 심장을 일시 정지시켜 허벅지에 있는 깨끗한 혈관을 적출해서 심장에 이식을 하고 다시 심장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수술이었습니다.

오후 4시경에 마취가 깨고 9시에 의식을 찾아 응급실로 올라가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서 집에서 매일 간호사들이 와서 치료를 해주고 갑니다. 지금 상태는 아주 좋아 회복이 너무 빠른 상태입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갈보리 성도들이 기도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제목

1. 수술 후유증이 없이 잘 회복되도록.
2. 건축 중인 교회가 선교사가 없어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삭개오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여리고에서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정도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나무에 위에 올라간다는 게, 좀 과장이 아닌가 할 정도로 똥판지 같은 행동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삭개오를 나무위로 밀어 올린 그 갈급함이 어디서 왔을까 묵상해 보았다.

삭개오는 세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조금은 양심에 거리끼는 측면도 있었지만, 잘 나가는 직업이었다. 조직내에서 일하다 보니 양심은 점점 굳어져서 빼돌리고 착복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고, 누구보다 최고가 되고 싶은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것이다. 오직 돈과 명예만 바라보며 앞만 보고 달렸다. 드디어 그는 화려한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부자로 우뚝 섰다. 그런데, 이상하다.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듯 허전하고 후회스럽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되돌아보면, 작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와 스트레스로 가득한 세월이었다. 그 동안 무시하고 지내왔지만, 창기처럼 양심 파는 세리라고 욕하고 빈정대는 사람들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면 만사형통이라 생각했는데, 행복하지가 않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자기 인생이 자신도 인정되지 않는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밀려온다. 아, 실패한 인생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갈 엄두도 나지 않는다. 철조망에 찢려 코에 구멍난 코끼리처럼 아무리 물을 빨아도 갈증이 나서 죽을 것만 같다. 갈급함이 온 몸과 맘을 가득 채워 폭발할 것 같은 어느날, 소문이 들려왔다. 예수란 분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을 꾸짖고, 가슴을 치며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세리의 고백을 옳다고 인정하시며 높여 주셨다는 것이다.

삭개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나 같은 죄인도 죄인임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면 의롭다 하신다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았다. 최선을 다해 찾았다. 멀리서 한번 만이라도 예수님을 보려는 마음으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앞뒤 재고 체면 차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다. 어린 아이처럼 오직 예수님 만나려는 마음으로만 가득했다. 사람들에게 가려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부르신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하신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것처럼.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 들였다. 춤추고 목청 높여 노래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인생의 갈급함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소되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선포되었다. - '풍성한 생명 목욕 성경반 고미현 집사'

성경말씀 외우기 2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 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 신명기 31장 6절